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해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논술고사

한국의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 Part I

문항 및 제시문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Today, anyone can have a voice in the fashion world, for anyone can start a blog no matter the age or the background. As bloggers became a vital part of fashion reality, the distance between traditional influences and them has narrowed. The rise of the blogging phenomenon democratized the industry by bringing it closer to the common people. Fashion shows, which used to be highly exclusive, are now live-streamed* events, often attended by more bloggers than actual industry professionals. Runway* and front-row* pictures are no longer carefully selected by industry authorities, but are spread across the Internet like fire, being immediately posted by bloggers. No longer do bloggers only share their style tips and comments—they share industry insights with millions of their followers. Thanks to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al media, blogging has transformed itself into a profitable business.

Living in the reality powered by technology, we are overloaded by an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and choices every day. As the number of fashion brands offered on the market grows, the level of efforts made to attract customers increases, too. As a result, we are being overwhelmed with a flood of marketing information. Bloggers appear to be a perfect solution as they can guide us and suggest the right ways. In contrast to huge fashion houses and magazines, they are real people to whom we can relate. We are willing to listen to them because we are looking for someone to trust.

* live-streamed: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 runway: 패션쇼의 무대

* front-row: 패션쇼의 맨 앞자리

- Fashionbi, *The Influence of Fashion Bloggers*에서 재구성

<제시문 2>

(앞 줄거리) 이리 떼의 습격을 알리기 위해 망루가 세워진 황야에서 들판을 감시하는 파수꾼들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이리 떼가 나타났다는 신호를 보내면 겁을 먹고 대피한다. ‘나’는 망루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나이 든 파수꾼이고, ‘다’는 새로 파견된 어린 파수꾼이다.

다: 조용했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저 뿐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구요. 그 틈을 노려 이리 때가 습격해 오면 어찌나하구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여기저기를 바라보았죠. 아무 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뿐이었어요.

[중략]

다: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나: 보렴, 방금도 이리 때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 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중략]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뗏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뗏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겨 왔으니.

- 이강백, 「파수꾼」, 『고등학교 문학』

<제시문 3>

기술 발전에 힘입어 사회는 정보의 저장, 전달, 공유가 가능해졌으며 공동 이익을 창출하기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정보 사회의 진전도 촉진되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발생했다. 첫째, 정보 격차의 문제가 심각하다. 정보 사회에서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희소하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검색이나 활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정보를 이용하기 어렵다. 둘째,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윤리 부족 문제이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인터넷상에서 생산·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인이나 집단을 비방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낮은 의식 수준은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 재구성

[문제 1]

<제시문 1>의 요지와, <제시문 2>에서 대답하는 ‘다’와 ‘촌장’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3>을 바탕으로, <제시문 1>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제시문 2>에서 발생한 문제를 각각 서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 |
|-----------------|
| 문항 및 제시문 |
|-----------------|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4>

(가) 과학의 조작주의는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계량할 수 있는 것만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합리성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도구적인 이성으로 축소된다. 기술적 합리성은 인간을 점점 노예로 만든다. 기술은 기계 장치의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인간과 자연을 조작의 대상으로 삼는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과 자연의 착취를 더욱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든다. 과학적 방법은 자연을 수량화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의 지배를 통해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위한 개념과 도구를 가져다 주었다. 대상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계량하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일차원적 사고는 대상을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면까지 바라보는 다차원적 사고를 배제한다. 생산과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모든 사회적 관계도 일차원적 사고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조직된다. 현대사회는 기술을 통해 지배를 계속하고 기술로써 지배를 확대해 간다.

— 마르쿠제, 『일차원적 인간』에서 재구성

(나) 인간은 생존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한다. 그러나 개발 중심의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 중심주의는 우리에게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였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밀림은 갈수록 파괴되고 있으며, 해수면의 상승으로 투발루나 몰디브는 머지않아 지도상에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직면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 중심주의 관점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며,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지나친 경제 성장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으며,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려는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고등학교 사회』에서 재구성

<제시문 5>

(가) 과학은 기술을 통해 인간의 생산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 덕분에 인간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편리하고 풍요로워졌다. 자동차, 비행기, 전화, 인터넷 등을 사용하기 이전의 인간은 자연의 주기에 따라 살아왔다. 그러나 자동차와 인터넷에 의존하는 현대의 생활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대단히 빨라졌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누가 어디에 있더라도 바로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 빠른 생활 방식이 일상화 되었다.

농업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그들은 날씨가 좋을지 나쁠지, 가뭄이나 홍수가 있을지, 해충이나 역병이 돌게 될지 등에 대해 걱정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산업사회라고 해서 자연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하면 자연에 덜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대신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과학·기술이 더욱 복잡하고 세밀해져서 한 개인이 과학·기술과 무관하게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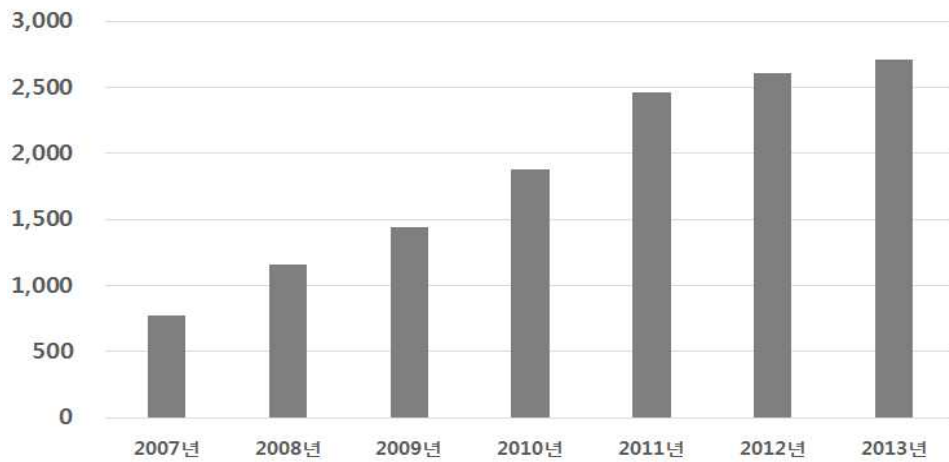
(나) 동물의 장기를 치료목적으로 인간에게 이식, 즉 이종장기이식으로 부족한 장기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외래 유전자를 주입하여 본래의 유전형질이 변화된 장기를 환자에 맞추어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식방법은 타 분야에 비해 현실적으로 장기 부족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전에 돼지의 신장, 심장, 간, 폐를 다른 동물에게 이식한 결과 이식거부반응이 지연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박정규 외, 「이종장기이식의 현황과 전망」에서 재구성

<자료>

[그림 1]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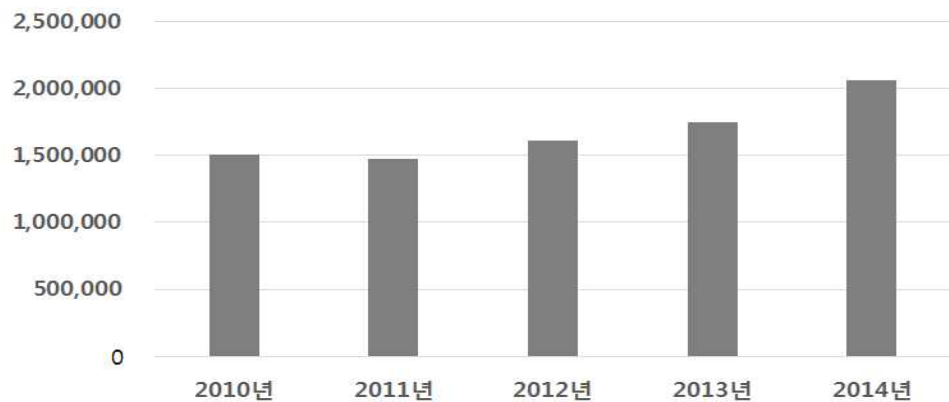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 신재생에너지: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킨 친환경 에너지와 햇빛, 풍력, 수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
출처: 연합뉴스

[그림 2] 보건·의료 관련 실험동물 사용 현황

(단위: 마리)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문제 3]

과학·기술에 대한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그림 1]을 <제시문 4>의 (나)와 <제시문 5>의 (가)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제시문 4>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림 2]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제 1~2]

<제시문 1>

- 한국어 번역

오늘날 누구나 패션 세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는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블로그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로거들이 패션 현실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블로거와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게 되었다. 블로깅이라는 현상으로 인해 일반인과 친해지게 된 패션 사업은 민주화되었다고 하겠다. 패션쇼는 기존에는 상당히 배타적이었지만 이제는 실제 패션업계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수의 블로거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생중계되고 있다. 예전에는 패션업계 당사자들이 무대나 앞좌석 사진들을 꼼꼼하게 선별하곤 했지만 이제는 블로거들이 이를 즉각적으로 올리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간다. 블로거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스타일 요령이나 코멘트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패션 사업의 통찰력까지도 수 백 만의 팬들과 공유한다. 소셜미디어의 급성장으로 블로깅은 유익한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테크놀로지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현실 속의 우리들은 매일 엄청난 정보와 선택에 둘러싸여 있다. 시장에 진출하는 패션 브랜드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객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엄청난 양의 마케팅 정보에 당황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블로거들은 우리를 안내해 주고 옳은 길을 제안해 주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인다. 거대 패션 회사나 잡지와 달리, 블로거들은 우리와 관련된 현실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블로거들의 말을 기꺼이 들을 것이다.

<제시문1>은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급성장으로 블로거들이 일반인과 가까워지면서 패션 사업은 민주화되었고, 매일 엄청난 정보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부합하는 블로거들의 제안을 들을 것이라고 한다.

<제시문 2>

<제시문 2>는 촌장이 이리 때라는 거짓된 정보로 파수꾼과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어 질서라는 명분 아래 이들을 통제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때 촌장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부당한 권력자로, ‘나’는 이에 현혹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대중을, ‘다’는 이러한 거짓을 고발하려는 진실한 소수를 대변한다.

<제시문 3>

<제시문 3>은 기술 발전에 힘입은 정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며, 정보를 왜곡시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사용자의 윤리 부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문제 3]

과학·기술에 대한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 서술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제시문 4>는 부정적 입장을, <제시문 5>는 긍정적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대립한다. <제시문 4>의 (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이 인간 자신과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제시문 4>의 (나)는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중심적 자연개발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태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한다. 반면에 <제시문 5>의 (가)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과학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제시문 5>의 (나)는 이종장기이식의 예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난치병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건강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 4]

[그림 1]을 <제시문 4>의 (나)와 <제시문 5>의 (가)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제시문 4>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림 2]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추론하는 것이다. [그림 1]은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규모의 확대를

보여준다. <제시문 4>의 (나)의 관점에서 [그림 1]을 해석해 보면, 인간중심적 자연개발과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한다는 점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생태중심적 사고로 전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시문 5>의 (가)는 인간이 과학·기술 발전에 의존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그림 1]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라는 또 다른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함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제시문 4>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위한 희생 도구로 동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물실험의 증가는 인간이 동물(생태/자연/환경)을 지배하고 조작한다는 문제와,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보지 않음으로써 결국 인간을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논술고사

한국의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 Part I

문항 및 제시문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1>

행복이 부, 건강, 공동체 같은 객관적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기대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당신이 손수레를 원해서 손수레를 얻었다면, 당신은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새 페라리 자동차를 원했는데 중고 피아트 자동차 밖에 가지지 못했다면, 당신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복권 당첨이든 자동차 사고든 시간이 지나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상황이 개선되면 기대도 커지게 마련이므로, 객관적 조건이 최고로 좋아져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 거꾸로 상황이 악화되면 기대가 작아지기 마련이므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행복감은 이전과 비슷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기 위해 심리학자의 술한 설문지가 필요하지는 않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 시인, 철학자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Yuval Noah Harari,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제시문2>

(가)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굽혀 베개 삼아도, 즐거움은 그 가운데 있다. 의롭지 못하면서 부하고 귀함은 내게는 뜬 구름 같으니라.

『논어』 술이(述而) (고등학교 고전)

(나)

어질구나, 안회야! 작은 한 주발의 밥을 먹고,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며, 허름한 골목에 사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생활이 주는 근심 걱정을 견디지 못하지만, 안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구나. 어질구나, 안회야!

『논어』 옹야(雍也)

<제시문3>

BEN Now, look here, William. I've bought timberland in Alaska and I need a man to look after things for me.

WILLY God, timberland! Me and my boys in those grand outdoors?

BEN You've a new continent at your doorstep, William. Get out of these cities, they're full of talk and time payments and courts of law. Screw on your fists and you can fight for a fortune up there.

WILLY Yes, yes! Linda, Linda!

(Linda enters as of old, with the wash.)

LINDA Oh, you're back?

BEN I haven't much time.

WILLY No, wait! Linda, he's got a proposition for me in Alaska.

LINDA But you've got... *(To Ben)* He's got a beautiful job here. [...] You're doing well enough, Willy!

BEN *(To Linda)* Enough for what, my dear?

LINDA *(Frightened of Ben and angry at him)* Don't say those things to him! Enough to be happy right here, right now. *(To Willy, while Ben laughs.)* Why must everybody conquer the world? You're well liked, and the boys love you, and someday... *(to Ben)* why, old man Wagner told him just the other day that if he keeps it up he'll be a member of the firm, didn't he, Willy?

WILLY Sure, sure. I am building something with this firm, Ben, and if a man is building something he must be on the right track, mustn't he?

BEN What are you building? Lay your hand on it. Where is it?

WILLY *(Hesitantly)* That's true, Linda, there's nothing.

LINDA Why? *(To Ben)* There's a man eighty-four years old...

WILLY That's right, Ben, that's right. When I look at that man I say, what is there to worry about?

BEN Bah! [...] There's a new continent at your doorstep, William. You could walk out rich. Rich! *(He is gone.)*

WILLY We'll do it here, Ben! You hear me? We're gonna do it here!

Arthur Miller, *Death of a Salesman*

[문제 1]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주제를 밝히고, 각각의 요지를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주제 및 요지에 근거하여, <제시문 3>에 나타난 벤(BEN)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및 제시문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4>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번—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 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장석남, 「수묵(水墨)정원 9 - 번짐」(고등학교 문학)

<제시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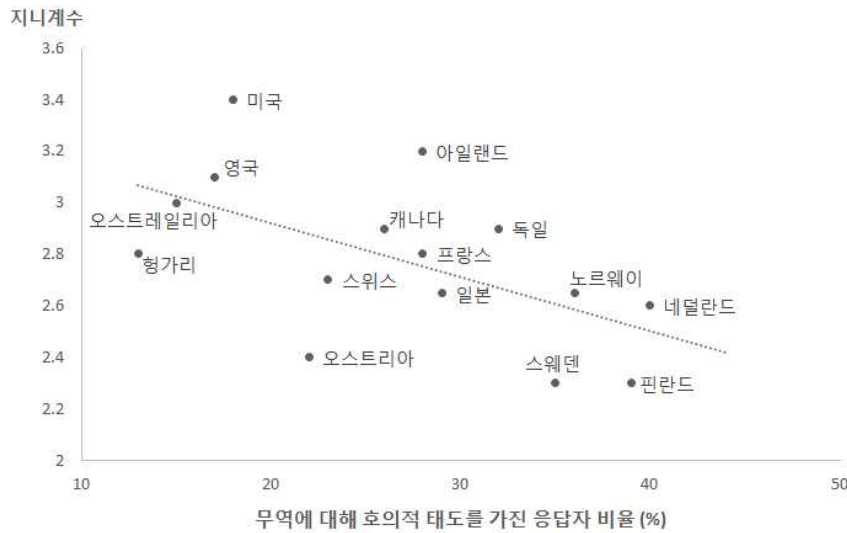
우리는 세계화의 단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는 무역, 투자, 여행, 커뮤니케이션, 운송 등의 상호 결합을 통해 세계를 연결하면서 급속도로 확장되었지만, 정부와 사회가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관리하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예컨대 얼마 전 국제 금융시스템이 거의 붕괴되면서 그 결과로 세계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졌으나, 각국 정부는 그런 종류의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또한 중국 및 기타 신흥국들이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 경제 생산의 거의 50%를 차지함에 따라, 선진 산업 국가에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방면에서 전면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 다. 이와 같은 도전의 결과로, 국가 간 장벽을 낮추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려 했던 유럽연합(EU)은 머잖아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는 근본적인 정치적 조정의 필요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드는 모닝콜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의미 있는 전 지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자국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소득 불평등, 정체된 임금, 높은 실업률, 이민과 난민에 대한 공포 등 세계화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국가주의가 오늘날의 주요 경향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진정으로 건설적인 국가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기술 변화에 영향을 받아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세계화는 바람직한 것이며, 그것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세계화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화는 전 세계에서 약 5억 명의 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계층 상승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낮은 가격을 선사했습니다. 더욱이 세계화는 20세기에 우리가 목도한 대규모 전쟁들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 왔습니 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어떤 것이 되더라도 세계화가 멈추지 않으리라는 점에 안도해도 좋습니다.

Jeffrey E. Garten, “This Is How Brexit Could Be Good For the World”, *Time* (June 24, 2016)

[그림] 소득 불평등과 무역에 대한 태도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그림]에서 Y축의 수치는 지니계수에 10을 곱한 값이다.

David T. Coe, "Jobs on Another Shore", *Finance and Development* (2008)

[문제 3]

<제시문 4>의 주제의식과 <제시문 5>의 요지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가 의미하는 바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문 5>에서 찾아 제시하고,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문 5>에서 제기된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해설

Part I은 인간의 ‘행복’과 그 추구 문제 등을 다루는데, 세 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 1]과 [문제 2]가 주어진다. [문제 1]은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주제를 밝히고, 각각의 요지를 서술하는 것이다. [문제 2]는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주제 및 요지에 근거하여 <제시문 3>에 나타난 벤(BEN)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제시문 1>요지: 행복/만족/즐거움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좌우되며, 이중 주관적 기대와 만족감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주관적 기대감의 충족, 즉 가진 것(현실적 조건)에 만족할 줄 아는 행복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시문 2> 요지: 의식주와 같은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찾을 수 있는 내면적 만족/행복/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한다. 비록 음식이나 주거 조건 등 생활의 (외적) 가난함이 있더라도 스스로 돌아보고 올바른 삶을 추구할 때 행복이 있음을 주장한다.

<제시문 3> 주제의식: 벤은 벤은 부와 재산 축적 등 외적/객관적 조건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그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 등 주관적/내적 행복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객관적/외적 조건의 성취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린다와 윌리는 소박한 생활 형편이지만 가족의 사랑, 근심걱정 없음, 꾸준히 제 할 일을 하며 사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 등 주관적/내적 요인에서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태도를 보인다.

Part II는 ‘세계화’의 문제를 다룬다. 세 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 3]과 [문제 4]가 주어진다. [문제 3]은 <제시문 4>의 주제의식과 <제시문 5>의 요지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는 것이다. [문제

4]는 <제시문 5>의 <자료>가 의미하는 바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문 5>에서 제시하고,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문 5>에서 제기된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론한다.

<제시문 4>주제의식: 번잡을 통해 상이한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나타낸다.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사회 문화 등에서도 경계와 차별이 사라지는 조화롭고, 아름답고, 사랑이 있는 세상을 표현한다.

<제시문 5>요지: 세계화의 흐름이 필연적 과정이며 인류의 빈곤과 전쟁을 막아주었다고 함으로써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과정으로 본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관리와 통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료>요지: [그림] ‘소득불평등과 무역에 대한 태도’는 무역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소득불평등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논술고사

한국의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 Part I

문항 및 제시문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You may be familiar with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A man from the ancient city of Samaria sees another man lying on the road. Many people ignore the man and pass him by, but the Samaritan stops to help him. He followed the Golden Rule: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unto you.

But the Golden Rule is challenged on a daily basis. People in need of help should get the support they require. Instead, others avert their eyes, turn their heads and pass by quickly. This is known as the Bystander Effect. Diffusion of responsibility is one reason for this effect. In their years of research, social psychologists Darley and Latané discovered a paradox: the greater the number of eyewitnesses became, the less each witness felt responsible to help. The outcome is that if everyone assumes someone else will help, then no one does. After interviewing study participants, Darley and Latané discovered that although their bystander subjects were by no means unsympathetic, they did not feel personally responsible to do anything.

Some countries have designed a "Good Samaritan" doctrine to impose a legal duty on these bystanders to render or summon help for strangers in peril. In layman's terms, the "Good Samaritan" doctrine makes it mandatory to at least attempt to call for help for an individual in peril, a task most people would do unless they were under the direst* of situations that would prevent them from doing so.

* direst: 대단히 심각한

- Sword and Zimbardo, "The Bystander Effect"에서 재구성

<제시문 2>

(가)

세계 각국은 난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백만 명의 난민이 겪는 생활고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방관하였다. 4백만 명에 이르는 시리아 난민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지에서 살아남고자 여전히 분투 중이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있는 3백만 명 이상의 난민들도 이 중 극소수만 2013년에 재정착했을 뿐이다. 또한 2015년 1분기 동안 군사정권의 탄압을 피해 약 25,000명의 미얀마 로힝야족들이 인접국가로 망명을 시도하였으나,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이웃 국가들은 이들을 돕지 않았다.

- 엠네스티 뉴스에서 재구성

(나)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라고 규정하고, 더 큰 재앙이 초래되기 전에 대응하자는 기후변화협약(1992)을 체결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가 불충분했으므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교토의정서(1995)를 채택했다. 선진국은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왔고 기술 및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과 개발도상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원칙이 교토의정서에 포함되었다. 이 의정서는 가입 당사국들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여건에 맞게 미국(7%), 일본(6%), 유럽연합(8%) 등에게 차별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하였다.

- 에너지관리공단, 「알기 쉬운 기후변화협약」에서 재구성

<제시문 3>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족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짖어 그 짚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떠나면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 송수권, 「까치밥」, 『EBS 수능특강 문학』

[문제 1]

<제시문 1>의 요지와 <제시문 3>의 주제의식을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1>과 <제시문 3>을 각각 활용하여 <제시문 2>의 (가)와 (나)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평가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및 제시문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4>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이고 그의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 중 한 아들에게는 3경을 주고, 두 아들에게는 2경씩을 주며, 세 아들에게는 1경씩을 주고, 나머지 네 아들은 받을 땅이 없어 울면서 뒥굴다가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부모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낼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 생령(生靈)으로 하여금 먹고살게 하였고, 또한 백성을 위하여 임금과 목자(牧者)를 두어 백성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 균제(均制)케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다 잘살게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임금과 목자 된 자가 팔짱만 끼고서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백성들이 서로 싸워 재산을 빼앗고 합치는 일을 보고 이를 누가 막겠는가? 힘센 자는 더욱 많이 얻게 하고 약한 자는 떠밀림을 당하여 땅에 쓰러져 죽게 한다면, 그 임금과 목자 된 자들은 군목(君牧)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 정약용, 「전론 1」, 『여유당전서』

<제시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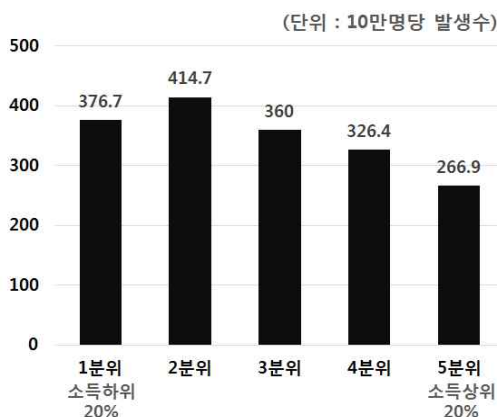
노직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것에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어떤 대상물에 자신의 노동을 가하여 최초로 사유 재산으로 삼았다면 그러한 소유는 정당하다. 그리고 교환이나 증여, 상속 과정에서 속임수가 없었다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소유 역시 정당하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직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국가의 모든 재분배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취득과 양도 과정에 잘못이 없는 한, 빈부 격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러한 상태는 정의롭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의 자발적인 자선 행위를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훌륭한 방식이라고 권장한다. 노직의 ‘소유권적 정의론’에 따르면 국가가 자원을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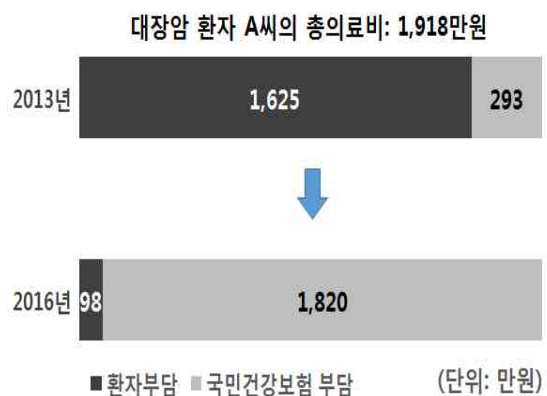
<자료>

[그림 1] 소득과 암 발생의 관계(남자)



출처: 보건복지부, 「소득계층에 따른 암환자의 암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그림 2] 4대 중증질환 지원 확대에 따른 가계 부담 변화 예상(2013년 기준)



출처: 매일경제

[표 1]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및 가계직접부담 비율(2012년 기준) (단위: %)

| 구 분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덴마크 | 일본 | 한국 | OECD 평균 |
|------------|------|------|------|------|------|------|---------|
| 공공재원 비율 | 47.6 | 84.0 | 77.4 | 85.8 | 82.1 | 54.5 | 72.3 |
| 가계직접부담 비율 | 12.0 | 9.0 | 7.5 | 12.4 | 14.0 | 35.0 | 19.0 |
| 기타(민영보험 등) | 40.4 | 7.0 | 15.1 | 1.8 | 3.9 | 10.5 | 8.7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공공재원 비율: 전체 의료비 중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비율

*가계직접부담 비율: 전체 의료비 중 가계가 부담하는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3』

[표 2] 2015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

| 구분 | | 4대 중증질환 | | | |
|-----------|----------------|---------|-------|-------|---------|
| | | 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희귀성 난치병 |
| 보험료 대 급여비 | 전체 | 3.4배 | 7.5배 | 7.3배 | 3.9배 |
| | 1분위(소득 하위 20%) | 12.9배 | 28.7배 | 28.8배 | 16.8배 |
| | 5분위(소득 상위 20%) | 1.4배 | 3.2배 | 3.1배 | 1.6배 |

*보험료: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함

*급여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의료비로 지급한 금액이며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함

*보험료 대 급여비: 급여비를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보험료 대비 혜택을 받는 정도를 의미함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문제 3]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아래의 정책을 도입하게 된 이유를 [그림 1], [그림 2], [표 1]을 활용하여 추론하고, [표 2]를 활용하여 이 정책에 대한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입장을 대비하여 서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원확대 정책>

사망 원인 순위 1~3위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과 희귀성 난치병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2013년부터 확대하고자 한다.

[문제 1~2]

<제시문 1>

- 한국어 번역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우화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사라미아라는 고대 도시에서 온 남자가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멈춰서 그를 도왔다. 그는 남이 자신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황금률, 즉 행동의 기본 원리를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황금률은 일상생활에서는 도전받고 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대신 사람들은 눈을 피하고 고개를 돌린 뒤, 빠르게 지나쳐 간다. 이를 “방관자 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효과에 대한 원인 중 하나가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사회심리학자 Darley와 Latané은 목격자가 많으면 많아질 수록 한 명의 목격자가 느끼는 책임감은 떨어진다는 역설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 누군가 도울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면 아무도 돕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험 참여자들을 인터뷰해서 Darley와 Latané은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다. 방관자는 동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방관자들에게 위험에 빠진 낯선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요청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우는 “선한 사마리아인” 원칙을 고안해 냈다. 쉽게 말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원칙은 적어도 위험에 처한 개인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강제화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방해하는 제일 끔찍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제시문1>에서 현대인들은 방관자 효과에 따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원칙은 이런 상황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법적으로 강제한다.

<제시문 2>

<제시문 2>의 (가)에서는 국제 사회의 외면 아래 시리아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난민들이 죽음과 절망에 몰린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2> (나)에서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선진국들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개발도상국들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제시문 3>

<제시문 3>은 날짐승을 위해 까치밥을 남겨놓거나 모르는 길손을 위해 길보시를 남겨놓는 것과 같은 행위가 후일 나에게도 파듯한 손길이 되어 돌아올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배려와 나눔이라는 정신의 고귀함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 3]

[문제 3]과 [문제 4]를 묻기 위하여 <제시문 4>에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 실린 「전론 1」의 지문을 <제시문 5>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1]과 [그림 2]로는 ‘소득과 암 발생의 관계(남자)’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4대 중증질환 지원 확대에 따른 가계부담 변화 예상(2013년 기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 1]로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및 가계직접부담 비율(2012년 기준)’을, [표 2]로 ‘2015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제시하였다.

[문제 3]은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제시문 4>를 통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분배하여 돌보아야 하는 것처럼, 부모의 역할을 하는 국가(임금)가 백성의 재산을 균제케 하여 다 잘살게 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해야 한다. 반면에 <제시문 5>를 통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재분배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 4]

[문제 4]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원확대 정책>인 “사망 원인 순위가 1~3위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과 희귀성 난치병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2013년부터 확대하고자 한다.”를 제시하고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된 이유를 [그림 1], [그림 2], [표 1]을 활용하여 추론하고, [표 2]를 활용하여 이 정책에 대한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입장을 대비하여 서술하도록 하였다.

논술고사

한국의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 Part I

문항 및 제시문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1>

바벨탑 신화에 따르면, 인류는 원래 단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했으나 신에 대한 도전을 뜻하는 바벨탑을 건축함으로써 신의 분노를 사게 된다. 신은 인간의 오만함을 벌하기 위해 여러 민족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여러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민족 간에는 오해와 분열이 끊이지 않았다. 바벨탑 신화는 궁극적으로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공격에 다름 아니다. 신화 속에서 언어의 단일성이 분명히 위험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그것은 오직 신의 관점에서 그러할 뿐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언어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워지는 벌을 받았던 신화 속 바벨탑 건설자들과 신화의 독자들 사이의 동일시를 암묵적으로 부추긴다. 인류는 한때 하나의 언어로 말했다는 것, 그리고 인류는 에스페란토이든 영어이든 아니면 차세대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 공통어)이든 간에 다시 하나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벨탑 신화에 담긴 숨은 의미이다.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1998), ed. by Mona Baker

<제시문2>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성공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고는 작업 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관점 혹은 대안을 도출하기도 하고, 매우 독특한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다양한 대안과 독특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다양한 관점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출신 배경이나 입장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동질적 관점을 가진 집단이 만든 제품보다 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보된 집단이 만든 제품이 좀 더 참신하고, 정교하고, 혁신적이고,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고가 창의적 인식을 촉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작업 집단이 하나의 방안이나 행동을 실행하기 이전에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작업 집단은 구성원 간의 단합을 강조하거나 생각, 행동, 감정까지 동질성을 유도하고, 독특한 생각보다 공통된 생각에 더 집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작업 집단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꺼이 공유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Paul B. Paulus & Bernard A. Nijstad, *Group Creativity: 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

<제시문3>

When materials are exposed to extremely high heat in a pot, they meld into a new compound. With people, the metaphor of a melting pot has long been used to explain the

phenomena of cultural integr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form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idea behind this metaphor was explained in 1782 by a French immigrant named J. Hector de Crèvecoeur, who envisioned America becoming a nation comprised of a completely new race that would eventually affect change to the world scene through its labour force and its subsequent posterity. The metaphor has persisted and exemplifies what some Americans see as an ideal model for their country. The melting pot theory, also referred to as cultural assimilation, revolves around the analogy that the ingredients in the pot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and religions) are combined so as to lose their distinct identities and yield a final product of uniform consistency and flavor,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inputs. In the case of the melting pot, the aim is that all cultures are reflected in one common culture; however, the common culture is usually the culture of the dominant group standing out. This is akin* to having a mixed vegetable soup with only the taste of tomato.

* akin: 유사한, 동류의

LeAna B. Gloor, "From the Melting Pot to the Tossed Salad Metaphor", *Hohonu* (2006)

[문제 1]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 핵심어를 제시하고,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요지를 각각 서술 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2>의 요지에 근거하여 <제시문 3>에 나타난 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및 제시문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4>

“아! 그게 보이는 듯합니다. 그게 저기에 서 있어요, 정의와 행복의 도시!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해요, 누구에게나 의무이지만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이죠. 국가는 거대한 협동조합일 뿐이고, 생산도구는 만인의 소유이며, 생산품은 중앙 창고에 저장됩니다. 사람들은 유용한 노동을 제공하고, 사회적 소비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공동의 가치 척도는 다른 아닌 노동시간이고, 물건의 가치는 단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든 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건의 교환은 이제 공동체의 지도에 따라, 그리고 노동교환권의 도움으로 생산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중략] 더 이상 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투기도, 도둑질도, 가증스러운 불법거래도, 탐욕이 부추기는 범죄도, 결혼을 위해 지참금을 준비해야 하는 처녀도, 유산 때문에 교살되는 늙은 부모도, 지갑 때문에 살해되는 행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적대계급도, 주인과 노동자도,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행동을 제한하는 법도 재판소도, 한쪽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다른 한쪽의 불공정한 독점을 지켜주는 군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한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집세로 살아가는 집주인도, 이자로 무위도식하는 금리생활자도, 사치도 가난도 없습니다! 아! 이거야말로 이상적인 정의, 숭고한 지혜가 아니고 무얼까요? 특권자도 빈자도 없이, 각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복, 즉 평균적인 인간 행복을 누리는 것 말입니다!”

Emile Zola, *L'Argent*

<제시문 5>

경제적 자유의 실질적인 향유와 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예컨대, 한우를 키우는 농부에게 땅과 축사를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나 소를 키워서 팔아 얻은 수익을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적 자유는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사유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자신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공유 재산이나 공유 자원은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동기가 없으므로 낭비된다.

사유 재산권의 보장은 사람들이 자원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사유 재산권의 보장으로 농부들은 자신의 농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낳는다.

시장 경제에서 사유 재산권의 보장은 경제 주체로 하여금 자기 이익 추구의 동기를 부여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 경제 운영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

고등학교 경제

[표] 경제시스템의 생산조직 유형

| | | 소유 주체 | |
|-------|-------|---------|---------|
| | | 공공 소유 | 민간 소유 |
| 조직 목표 | 공익 추구 | (A)형 조직 | (B)형 조직 |
| | 사익 추구 | (C)형 조직 | (D)형 조직 |

* 위 [표]는 경제시스템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산조직들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문제 3]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각 내용에 부합하는 조직 유형을 <자료>의 (A), (B), (C), (D) 중에서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에서 (B)형 조직의 존재 이유를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내용을 활용하여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해설

Part I 은 ‘다양성’의 장점과 획일화 문제 등을 다룬다. 세 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 1]과 [문제 2]가 주어진다. [문제 1]은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 핵심어를 제시하고, 각 제시문의 요지를 서술하는 것이다. [문제 2]는 <제시문 2>의 요지에 근거하여 <제시문 3>에 나타난 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제시문 1> 요지: 바벨탑 신화가 언어가 다양하게 분화된 이유와 배경을 전하는 한편, 하나의 언어에 대한 인류의 염원을 함의한다고 말한다.

<제시문 2> 요지: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고가 필요하며, 다양성이 풍부한 집단은 관점과 대안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더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3> 요지: <제시문 3>은 용광로/멜팅팟 이론 예로 들어 다양한 문화 요소가 융합되어 완전히 다른 하나의 균질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Part II 는 ‘사회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다룬다. 세 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 3]과 [문제 4]가 주어진다. [문제 3]은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각 내용에 부합하는 생산조직 유형을 (A)-(D)중에서 선별하는 문제이다. [문제 4]는 <자료>에서 (B)형의 존재 이유를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내용을 활용하여 추론하는 것이다.

<제시문 4> 주제의식: 국가를 거대한 협동조합으로 규정하여, 생산도구의 공공소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평균적 인간 행복과 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이상 사회로서 국가에 대한 염원을 피력한다.

<제시문 5> 요지: 개인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시장경제를 설명하고, 시장경제의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갖는 경제효율성 및 긍정적 효과를 말한다.

<자료> 요지: [표] ‘경제시스템의 생산조직 유형’은 경제시스템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산조직들을 논리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